

2019-11-06 수 지공여행 21차 소요산 단풍구경

아침밥을 먹으며 용과 대화 임상심리 전문가 되는 길이 매우 험난하구나. 그래도 늦은 나이에 시작하여 동기 중에 혼자 학술지에 논문 올리고 필수기관에 들어가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락 말락하며 고생하면서도 앞서가는구나.

한신플러스 시험도 1등했단다.

인재가 옆에 있었네.

난 2등은 해봤지만 1등은 못했는데..

세영이 새끼 때문에...

넘사벽이었지.

아침잠을 90분 자고 일기와 카톡 메일 정리

술 수습끝 행사가 멋지다

유명배우들의 모습같다

우리집에도 배우가 생겼네

자기이름까지 있는 포토존에서 품잡고 서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

이번주 축하 모임에 막걸리를 플렉스 할까보다

맞나?

남성역에 가서 갑오징어와 막걸리 잔치.

손님이 많이 오는데 혼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여 급하게 먹고 나왔다.

아무래도 내가 요리를 배워서 집에서 여유있게 먹고 마셔야겠다

대낮에 막걸리를 마셨더니 졸다가 장암역으로 갈 뻔...

소요산으로 가는 중에도 계속 졸았다. 막걸리의 효과가 세구나.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았기에 찬바람을 맞고 싶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소요산역까지 갔다 그대로 돌아오며 단풍구경을 했다

이미 내장산까지 내려갔기에 멀리서 봐도 아름답구나.

내 삶의 단풍도 저 정도는 되겠지...

단풍은 역시

노란 은행잎과

빨간 단풍잎이 최고

붉으스레하거나

노릇노릇한 것
섞여 있는 것들은 별로다.

난 어떤 색으로 보일까?

도봉산 단풍은 쳐다보지 않았다.

왜냐고?

딸내미들과 같이 보려고 아껴두었지.

이번주 김치를 담근다기에 얼른 가서 마늘을 자야겠다

